

일본 경제 동향 (2014. 3월)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2
1.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가수요 영향 본격화	2
2. 무역적자폭 축소	7
3. 엔화의 강세 반전과 추가·금리의 하락	10
4. 대미투자 급증과 대중투자 급감의 양극화	12
III. 일본의 주요정책	13
1. TPP전략, 대미 우선 관세교섭에서 전환	13
2. 일본 정부, 원전재가동 방침 결정	14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5
1. 대일수출 감소세 지속	15
2. 한일간 긴밀한 산업협력이 필요	18
3. 일본인 입국자, 한국인 일본방문자 모두 감소	20
V. 참고 자료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1
2. 일본의 주요 경제일정	23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www.kjc.or.kr]

I. 일본 경제 지표

< 일본경제 주요지표 >

구 분	2012	2013	2013			2013	2014	
			2/4	3/4	4/4	12	1	2
GDP증가율(연율,%)	1.4	1.5	4.1	0.9	0.7(P)			
민간소비증가율(%)	2.0	1.9	0.6	0.2	0.4(P)			
광공업생산증가율(%)	0.6	-0.8	1.5	1.7	1.9	0.9	3.8	-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0.4	0.7	0.4	0.3	-0.1	-0.3	-
상승율(%)	-0.1	0.4	0.0	0.7	1.1	1.3	1.3	-
실업률(%)	4.3	4.0	4.0	4.0	3.9	3.7	3.7	-
수출(조엔)	63.7	69.8	17.7	17.8	18.1	6.1	5.3	5.8
수입(조엔)	70.7	81.3	19.7	20.6	21.8	7.4	8	6.6
무역수지(조엔)	-8.4	-11.5	-2.0	-2.8	-3.7	-1.3	-2.8	-0.8
경상수지(조엔)	4.8	3.3	1.7	1.4	-1.4	0.6	-1.6	-
해외직접투자(조엔)	9.8	13.2	3.3	4.7	3.1	1.8	1.3	-
환율 달러	80.1	97.7	98.8	98.9	100.5	103.5	103.9	102.1
원화(100엔)	1,413	1,123	1,138	1,139	1,035.7	1,021	1,022	1,049
금리(10년물, %)	0.78	0.72	0.72	0.77	0.64	0.67	0.66	0.60
주가(닛케이)	9,612	13,651	13,629	14,128	15,388	15,655	15,578	14,618

주: 증가는 전기비, (P)는 2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 (경기판단)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회복세 지속
 - '14.1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하여 114.8(전월대비 3.1p 상승)로 5개월 연속 상승
- ☐ (물가) 가수요의 영향으로 상승
 - '14.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 (무역수지) 무역적자폭 축소
 - 수출 증가,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적자 폭이 0.8조 엔으로 축소(전월 2.8조엔)
- ☐ (환율) 엔화 강세로 반전
 - '14.2월 엔화의 대미달러 가치는 102엔으로 전월대비 1.7% 상승
 - * '14.2월 엔화(100엔당)의 대원화 가치는 1,049엔으로 전월대비 2.6% 상승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가수요 영향 본격화

□ (총 합)

- 일본경제는 '13년 4분기 GDP가 0.7%로 하향 수정되었으나,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회복되면서, 2014년 1월 경기동향지수(2010년 =100)는 114.8로 5개월 연속 상승
- 4월 소비세 인상 이후에는 일시적인 냉각이 불가피하나 현재까지 경기는 탄탄한 편

□ (전 망)

- 2014년 1분기까지 경기회복세가 지속된 이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에는 일시적인 감속이 예상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엔저로 완만하게 증가, 소비세 증세 이후에는 내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드라이브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소비는 소비세 증세 이전까지는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나, 소비세 인상 후에는 큰 폭으로 감소를 보이다가 다시 회복될 전망



자료: 내각부

□ (시사점)

-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
- 설비투자는 수출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경기회복의 지속여부는 수출의 향방이 관건
- 이에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엔저 및 성장전략 드라이브, 그리고 소비증대를 위한 임금·고용 개선 등이 최대 정책변수

□ (GDP) '13년 4분기 GDP성장율 0.7%로 하향 수정

-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13년 4분기 GDP성장율 개정치(2차 속보치)가 전기비 0.2%, 연율 0.7%로 2월 발표된 1차 속보치 및 민간성크랭크의 평균전망치 1%를 하회
-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1차 속보치의 추계시점보다 적었는데, 특히 설비투자가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형투자에 신중해짐에 따라 0.8% 증가하여 1차 속보치보다 0.5P 떨어짐
- 수출둔화세도 두드러져 향후 수출의 향방이 경기회복 지속여부의 초점이 될 듯
- GDP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0.7%P, 소비세 증세전 가수요의 영향으로 내수가 경기를 지탱한 반면, 외수의 기여도는 -0.5%로 2분기 연속 GDP성장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
- 외수기여도의 감소는 수출 증가가 소폭에 그친 반면, 내수확대로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소비세 인상전의 가수요를 고려하면, 연율 0.7%의 성장률은 저성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엔저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수출이 '14년 일본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14년 1분기에는 소비세 인상 직전인 만큼 가수요의 영향이 더욱 확대되어 GDP성장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분기에는 가수요의 반작용으로 GDP성장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3분기 이후에는 엔저의 수출증가효과가 본격화되어 성장률에도 진입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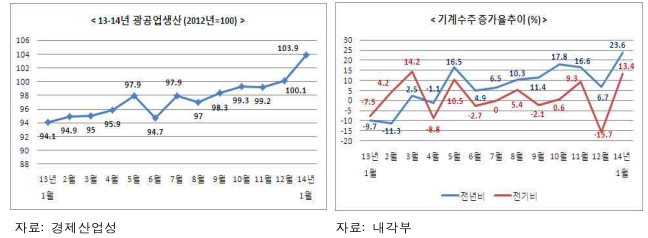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1	2012	2012		2013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0.8	0.1	1.1	1.0	0.2	0.2
(전기비연율)	-0.5	1.4	(-3.2)	(0.6)	(4.5)	(4.1)	(0.9)	(0.7)
(전년동기비)			(-0.2)	(-0.3)	(0.0)	(1.2)	(2.3)	(2.6)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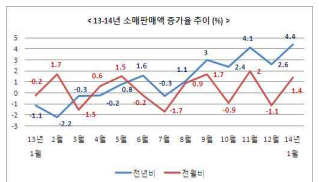
□ (산업생산·투자) 엔저 및 가수요의 영향으로 경기 개선

- '14년 1월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3.8%의 높은 증가를 보임
 - 15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개선된 가운데, 수송기계가 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전기기계가 4.1% 상승, 전반적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4월 소비세 증세를 앞둔 가수요의 영향이 큼
 - 소비세 증세 이후에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가수요의 반동으로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나, 제조업은 수출생산으로 대체함으로써 감소폭이 완화될 전망
- 설비투자는 4분기에 전기대비 0.8% 증가하여 3분기 연속 증가한 가운데, '14년 1월 기계수주액은 전월대비 13.4% 증가
 - 제조업의 기계수주액은 일반기계 등 생산설비의 수주확대로 전월대비 13.4% 증가하였고, 자동차산업도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증가로 생산라인을 확대
 - 비제조업의 기계수주액은 전월비 12.1% 증가하여 4개월 만에 제조업의 증가율을 하회하기는 했으나 투자의욕은 건조
 - 향후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자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수익 및 기업마인드도 개선
 - 경상이익은 '13년 4분기에 전분기보다 8.5% 증가하였고, '14년 2월 업황판단지수(DI)도 높은 수준을 유지



□ (소 비) 가수요의 영향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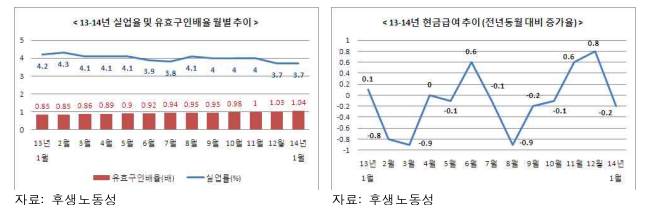
- '14년 1월 소매업판매액은 전월비 1.4% 증가(전년동월대비 4.4%)
 - 가전제품에 대한 가수요의 본격화로 기계 기기 소매업이 대폭 증가
 - 가계부문의 1월 실질소비지출도 전월비 1.6% 증가
- 4월 소비세 증세 후에는 가수요의 반동으로 일시적으로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그 후에는 반동의 영향이 일순함에 따라 회복될 전망



자료: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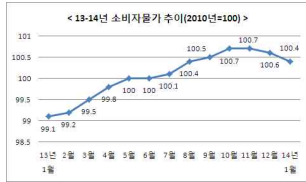
□ (고 용) 노동수요의 증가로 고용환경의 개선 기조 지속

- '14년 1월 완전실업률은 3.7%로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완전실업자 수는 2만 명이 감소한 242만 명
 -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0.01P 상승한 1.04로, 4개월 연속 개선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고용상황에 대한 판단을 6개월 만에 상향 수정,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
- 소비의 중요한 영향변수인 '14년 1월 현금 급여는 전년동기비 0.2% 감소
 - 소비세 증세 후에는 근로자소득이 실질 기준으로 악화될 전망



□ (圖 7) '14년 1월 소비자물가는 상승, 가수요의 영향 두드러져

- '14년 1월 소비자물가(생선식품 제외, 2010년=100)는 100.4로 전년동월대비 1.3% (전월대비 -0.3%) 8개월 연속 상승
- 전기요금 상승과 더불어 에어컨과 텔레비전 등 내구소비재의 가격이 가수요의 영향으로 상승
- 가정용 내구소비재 전체로 전년동월대비 6.4% 상승, 0.7% 상승에 그쳤던 전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
- 특히, 디스플레이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비전은 3.7% 상승,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1%대(전년동기대비)전반에서 추이할 것이나, 상승폭은 완만하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



자료: 총무성

2. 무역적자폭 축소

□ (통 합) '14년 2월 무역적자는 0.8조 엔으로 전월보다 축소

- 무역수지는 20개월 연속 적자
- 무역적자의 축소 원인은 수출은 5조 8,000억 엔으로 전월과 비슷한 반면, 수입은 6조 6,000억 엔으로 전월에 비하여 크게 줄었기 때문임
- 지역별 무역수지는 대미 무역수지는 자동차부품과 건설용·광산용기계 수출의 호조로 4,836억엔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대EU 무역수지는 자동차 등의 수입증가로 373억엔 적자
- 對중국 무역수지는 전월의 10,451억엔에서 2월에는 1,108억엔으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전월보다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크게 줄었기 때문임

< 2014년 2월 일본의 수출입(조엔, %) >

	2013년		2014.1월			2014.2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수 출	69.8	9.5	5.2	9.5	-14.0	5.8	9.8	11.5
수 입	81.3	15	8.0	25.0	8.5	6.6	9.0	-17.5
무역수지	-11.5	4.5	-2.8	1.2	1.5	-0.8	0.03	-2.0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출) 엔저의 수출수량 증대효과도 동반

- '14년 2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비 9.8%로 전월의 9.5%보다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전월비로는 11.5%로 전월의 -14%에서 크게 반전
- 수출증가율은 1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수량도 엔저의 J커브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5.4% 증가
-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광물성연료(76.1%), 섬유기계(53.3%), 음향기기(30.4%) 등

- 5대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유기화합물(11%), 반도체 등 전자부품(8.7%), 자동차부품(4.7%), 철강(4.1%), 그리고 수출 순위 1위인 자동차(4%) 순
- 주요 수출대상국 가운데는 대중 수출이 27.7%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EU(13.9%), 한국(7.8%), 미국(5.6%), 대만(4.2%), 아세안(1.25) 순
- 대중 수출은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의 수출이 각각 2,041% 및 13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4.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억엔, %) >

순위	품목	2013년		2014.1월				2014.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1	자동차	104,150	12.9	7,791	13.9	-14.1	8,585	4.0	10.2		
2	철강	37,933	8.5	3,056	14.4	-9.3	3,046	4.1	-0.3		
3	자동차부품	34,762	8.5	2,530	7.7	-18.0	2,813	4.7	11.2		
4	반도체 등 전자부품	35,526	6.4	2,571	8.1	-14.0	2,695	8.7	4.8		
5	유기화합물	25,236	38.8	2,473	25.1	12.2	2,222	11.0	-10.1		

자료: 일본 재무성

< 2014.2월 일본의 지역별 수출 (단위: 억엔, %) >

순위	국가	2013년		2014.1월			2014.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1	중국	126,287	9.7	8,626	13.1	-29.1	10,749	27.7	24.6
2	미국	129,310	15.6	10,236	21.9	-9.4	10,636	5.6	3.9
3	ASEAN	108,297	4.9	7,884	4.0	-12.9	8,531	1.2	8.2
4	EU	70,007	7.7	6,111	20.2	-9.1	6,095	13.9	-0.3
5	한국	55,163	12.2	4,201	4.9	-8.5	4,580	7.8	9.0
6	대만	40,611	10.6	3,076	0.4	-17.9	3,272	4.2	6.4

자료: 일본 재무성

□ (수 입) 연료수입 및 가수요 등으로 증가세 지속

- ‘14년 2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6조 6,000억 엔으로 16개월 연속 증가 하였으나, 전기비로는 전월의 8.5% 증가에서 17.5% 감소로 크게 반전
- 수출수량은 0.5% 감소

- 전년동기대비 수입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81%), 철강(50%), 반도체 등 전자부품(41%) 등
- 자동차의 수입증가율이 높은 데는 4월 소비세증세를 앞둔 가수요의 영향이 큼
- 5대 수입품목 중에서는 석유제품만이 14.1%의 감소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품목들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41.1%), 액화천연가스(11.4%), 통신기(5%), 원유(3%) 순으로 수입증가율이 높은 편임
- 주요 수입대상 국가는 미국(20.8%), EU(15.4%), ASEAN(10.6%), 중국(5.7%), 사우디아라비아(1.8%)의 순으로 수입증가율이 높은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감소

< 2014.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억엔, %) >

순 위	품목	2013년		2014.1월				2014.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1	원유	142,408	16.3	14,090	28.1	-0.7	12,545	3.0	-11.0		
2	액화천연가스	70,588	17.5	7,365	21.4	6.8	6,686	11.4	-9.2		
3	석유제품	27,124	10.2	2,841	10.8	4.8	2,341	-14.1	-17.6		
4	반도체 등 전자부품	24,452	37.4	2,596	57.3	20.7	2,118	41.1	-18.4		
5	통신기	26,787	24.7	2,487	8.9	11.9	1,992	5.0	-20.0		

자료: 일본 재무성

< 2013년 2월 일본의 지역·국가별 수입 (단위: 억엔, %) >

순위	국가	2013년		2014.1월			2014.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1	중국	176,502	17.4	19,074	34.4	19.2	11,856	5.7	-37.8
2	ASEAN	114,864	11.5	10,899	22.9	6.0	10,179	10.6	-6.6
3	EU	76,494	15.2	6,997	20.2	0.4	6,469	15.4	-7.5
4	미국	68,113	122	6,564	25.9	21.9	5,799	20.8	-11.7
5	사우디아라비아	48,633	11.1	4,902	22.5	-1.2	4,213	1.8	-14.1
8	한국	34,966	8.1	3,357	7.7	4.5	2,835	-2.5	-15.5

자료: 일본 재무성

3. 엔화의 강세 반전과 주가·금리의 하락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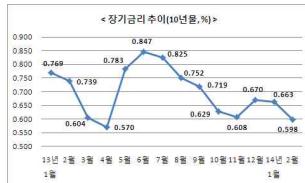
- '14년 2월 평균 주가는 전월보다 6.2% 하락한 14,618엔
- 현재는 우크라이나 정세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15,000엔대 전반에서 추이

□ (금 리)

- '14년 2월중 10년물 국채의 유통이회율 평균치는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 및 일본의 주가하락 등을 배경으로 전월의 0.663%에서 0.598%로 하락
- 현재는 미국의 장기금리가 회복권내에 있어 0.6%대 전반에서 추이



자료: 일본경제신문



자료: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통화량(머니터미네이스(평잔))은 일본은행에 의한 자산매입이 진전되는 가운데 '14년 2월은 전년동월대비 55.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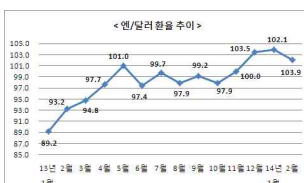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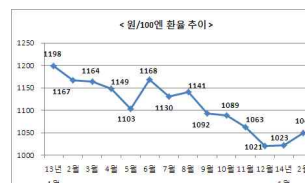
자료: 재무성

□ (환 율)

- '14년 2월 엔화의 대미달러 가치는 전월의 103.9엔보다 1.8엔 상승한 102.1을 기록하여 강세로 전환
-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싼 불투명성의 증대로 일시적으로 엔고 움직임을 보였으나, 그 후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 영향으로 엔저로 전환, 현재 103엔대에서 추이
-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 폭 확대
- 엔화의 대원화 가치의 2월 평균치는 전월의 1,022엔보다 약간 상승한 1,049엔
-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중기적으로는 ① 미일간 금융정책의 차이(미 금융정책의 정상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②일본의 무역적자구조 정착 등으로 엔저는 지속될 전망



자료: 일본은행



자료: 한국은행

4. 대미투자 급증과 대중투자 감소의 양극화

□ (동향)

- '14년 1월 해외직접투자는 금액으로 12,581억 엔으로 전월보다는 크게 줄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전월보다 높은 52.8%의 증가율을 보임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국제수지기준, 억엔, %) >

	2012	2013	2013												201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금액	97,784	131,946	4,045	9,334	15,018	9,011	8,592	37,297	5,317	4,463	8,649	4,631	17,358	12,581	
전년동기비	7.1	34.9	-53.2	230.2	63.8	-9.5	-18.9	425.1	-29.0	-41.6	-17.8	-10.3	46.5	52.8	
전기비	7.1	34.9	-50.9	130.8	60.9	-40.0	-4.6	334.1	-85.8	-16.1	93.8	-46.5	278.7	-27.5	

자료: 일본 재무성

<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국제수지 기준, 억엔, %) >

	2012년	2013년	2014.1월		
			금액	구성비	증가율(전년동기비)
대세계	97,784	131,946	12,582	100.0	52.8
아시아	30,987	39,294	2,336	18.6	2.5
중국	10,760	8,855	367	2.9	-58.0
한국	3,197	3,209	267	2.1	-5.0
북미	28,628	45,698	3,129	24.9	51.7
미국	25,600	42,933	3,018	24.0	53.4
중남미	8,342	9,902	1,063	8.4	-38.1
유럽	24,747	31,567	5,721	285.0	45.5
대양주	8,838	5,895	200	1.6	-73.0

자료: 일본 재무성

-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전년동월대비 51.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럽(45.5%), 아시아(2.5%) 순으로 증가한 반면, 대양주(-73%)와 중남미(-38.1%)의 직접투자는 감소
-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5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중일 관계의 영향 계속으로 58%의 대폭 감소를 보임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국가별 양극화가 보이고 있음

□ (특징)

- 엔저에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율과 해외직접투자간 상관관계, 즉 엔고는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엔저는 해외직접투자를 수출로 대체시키려는 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 TPP 전략, 대미 우선 관세교섭에서 전환

□ (배경)

- TPP 교섭에서 최대 난항을 겪고 있는 미일간 관세교섭에서, 일본은 미국 우선에서 전환하여 타개를 목표
- 미일 관세교섭에서 미국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중요 5개 품목군 관세를 전면적으로 철폐해야한다는 원칙론을 고수, 지난 2월 싱가포르 TPP각료회의에서도 관세철폐예의를 인정하자는 일본과 타협점을 찾지 못함

□ (주요 내용)

- 일본은 미국 이외의 TPP참가국들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대미교섭을 유리하게 진전시키는 의도
- 초점은 호주와의 2국간 FTA 교섭으로서, 일본측은 38.5%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 호주정부는 일본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쇠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 38.5%를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4월 타결을 목표로 30%전후까지 인하할 용의를 보이고 있으나 합의여부는 불투명
- 일본정부는 이달 중에 멕시코(돼지고기), 뉴질랜드(유제품), 싱가포르(쥬코릿) 등과 관세교섭의 대강 합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모두 5개 품목군에 포함, 일본정부는 철폐가 아닌 인하를 요구할 방침임

□ (시사점)

- 4월 22~23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농산품분야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강한데, 그

때까지 일본은 호주 등 다른 TPP참가국들과의 관세교섭을 진전시켜 관세철폐가 아닌 관세인하의 전례를 만들어 대미교섭을 유리하게 추진하려는 전략

- 그러나 4월 22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관세철폐가 아닌 인하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 생산자들의 반발이 강하고, 일본정부 내에서도 이 건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같은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는 미지수

2. 일본 정부, 원전 재가동 방침 결정

□ [배경]

-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인 '에너지 기본계획'의 정부안이 2월 25일 결정

□ [주요 내용]

- 일본정부안은 원전을 중요한 베이스로드 전원(저비용으로 주야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전원)으로 재가동할 방침을 명시
-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추겠다고 하고, 원전 대체에너지 확보방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비용절감, 온난화대책, 기술·전문인력 강화 등에 역점

□ [시사점]

- 원전이 재가동되는 경우 최대 무역수지 적자원인이 되고 있는 수입의 억제에 통하여 일본의 GDP성장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원전이 입지한 주변지역 가운데는 재가동에 신중한 지자체들도 있기 때문에 재가동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재생가능에너지는 화력발전 등에 비해 발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기술혁신 동향도 주시하면서 보급 속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수출 감소세 지속

□ (총 합)

- '14년 2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대비 6억달러 증가, 전년동월대비 3억달러 감소한 18억달러
- '14년 2월 대일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6% 감소, 전월대비로는 7.1% 감소한 26억달러
- '14년 2월 대일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0.6% 감소, 전월대비로는 10.5% 증가한 44억달러

<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억달러,%) >

	2013년		14.1월			14.2월		
	금액	증감	금액	전년동기비	증감	금액	전년동기비	증감
대일수출	347	-10.6	28	-19.7	-5.7	26	-9.6	-7.1
대일수입	600	-6.7	40	-20.0	-16.8	44	-10.6	10.5
무역수지	-254	-2	-12	-3	-10	-18	-3	6

자료: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4년 2월 대일수출은 전월에 비하여 감소폭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13년 2월 이후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의 총수출은 1.5%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의 수입도 9%나 증가하였는데도, 대일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엔저 하에서 대일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년 2월	-9.6	-7.1	1.5	-5.8	9.0	-17.5

- '14. 2월 대일수출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대일수출 변화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보면, '14년 1월과는 대조적으로 대다수 품목에서 대일수출이 증가
- 반면, 대일수출 순위 1위인 광물성연료와 6위인 석유화학제품 등 2개 품목만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각각 -46.5% 및 -20.7%로 매우 큼
- 대일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가정용전자제품(54.1%)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이어 산업용전자제품(37.1%), 수송기계(28.9%), 철강제품(26.9%)등이 20%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대일 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3년		2014.1월			2014.2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년동기비	전1비		전년동기비	전1비
	총계	34,694	-10.6	2,824	-19.7	-5.7	2,623	-9.6	-7.1
1	광물성연료	8,519	-1.6	719	-44.8	32.2	542	-46.5	-24.6
2	철강제품	3,689	-20.1	360	18.0	2.0	363	26.9	0.8
3	산업용전자제품	3,261	-25.3	219	-23.9	-11.0	234	37.1	6.8
4	전자부품	2,826	-12.3	192	-17.4	-6.8	213	1.6	10.9
5	정밀화학제품	1,474	-5.6	120	-1.0	-8.4	121	7.4	0.8
6	석유화학제품	1,788	-6.3	113	-28.4	-6.6	118	-20.7	4.4
7	수송기계	1,161	-19.4	106	-10.3	5.0	100	28.9	-5.7
8	기계요소공구·금형	975	-8.7	91	2.7	12.3	87	19.6	-4.4
9	농산물	1,072	-10.3	96	11.0	-7.7	85	7.7	-11.4
10	가정용전자제품	774	11.6	70	22.4	1.4	79	54.1	12.9

자료: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입)

- '14년 2월 대일수입도 총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9%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6%의 감소를 보임
- 그러나 전월대비로는, 총수입이 마이너스 6.2%인데 비하여 대일수입은 10.5% 증가

- 이와같은 차이는 전년동월 이후 대일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경기상황을 비롯하여 원·엔 환율 동향, 국산대체 정도, 수입선다변화 정도 등 주요 변수의 변화속도와 변화폭에 기인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년 2월	-10.6	10.5	3.9	-6.2

- '14.2월 대일수입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보면, 정밀기계(23.9%), 산업용전자제품(18.3%), 산업기계(8.1%) 등 3개 품목에서 대일수입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7개 품목은 대일수입이 감소
- 대일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25.9%)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이어 철강제품(-16.7%), 수송기계(-14.3%), 기초산업기계(-13.6%)가 전체 대일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10%이상의 감소율을 보임

<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 목 명	2013년		2014.1월			2014.2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년동기비	전1비		전년동기비	전1비
	총계	60,016	-6.7	4,025	-20.0	-16.8	4,447	-10.6	10.5
1	철강제품	9,047	-13.7	631	-13.5	-7.3	679	-16.7	7.6
2	석유화학제품	6,722	20.4	537	-7.2	-3.2	490	-25.9	-8.8
3	전자부품	7,346	5.3	501	-14.2	-23.5	465	-9.0	-7.2
4	정밀화학제품	4,491	-9.7	323	-7.1	-18.4	372	-4.3	15.2
5	기초산업기계	4,820	8.1	225	-57.7	-35.9	354	-13.6	57.3
6	정밀기계	2,837	-30.1	163	-11.6	-16.4	247	23.9	51.5
7	플라스틱제품	3,264	-17.0	223	-23.8	-7.9	233	-10.6	4.5
8	산업용전자제품	2,813	-30.1	198	-8.7	-22.7	232	18.3	17.2
9	산업기계	2,371	-8.3	134	-2.6	-27.6	193	8.1	44.0
10	수송기계	2,375	-10.2	159	-22.7	-22.1	190	-14.3	19.5

자료: 한국무역통계

2. 한일간 긴밀한 산업협력이 필요

□ (동향) 2013년 투자 일순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

- ‘13년 일본의 대한투자는 투자건수, 투자금액 모두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 일본인투자 감소가 전체 외국인투자 감소에 영향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달러, %) >

	2011년		2012년		2013년		2013.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인투자	502 (18.7)	2,289 (9.9)	564 (12.4)	4,542 (98.4)	447 (-17.7)	2,690 (-40.8)	117 (-21.1)	727 (-41.2)
전체 외국인투자	2,709 (-12.9)	13,673 (4.6)	2,865 (5.8)	16,286 (19.1)	2,607 (-9.1)	14,548 (-10.7)	674 (-11.7)	3,802 (-25.2)

주: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 대한투자 감소원인은 전년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초대형 투자의 지연을 들 수 있으며, 엔저도 일본의 대한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 다만,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

□ (최근 투자 및 산업협력 사례)

- 미쓰비시화학이 삼양사와 합작투자법인 설립('14.1.14)
- JX홀딩스 4,800억 투자, 쇼와셀렉슈유&다이하오일 5,000억 투자
- 도레이 세만금산단에 '18년까지 3,000억 투자 예정
- JFE, 현대제철의 주식 2% 취득(2014년 1월 23일, 넷케이)
- 요코하마고무, 금호타이어와와 기술제휴 계약(2014년 2월 14일)
- 자본제휴도 염두에 두고 타이어의 환경대응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

□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

- 일본의 국제협력은행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조사에서 '13년 한국은 중기적으로 유망한 국가 중 13위로 랭크(전년은 12위)
- 산업별로는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중 전기전자만이 10위에 랭크된 반면, 다른 업종들은 10위 이하에 랭크
- 한국에서 사업 강화 내지는 확대하겠다고 한 응답비율은 '12년 47.9%에서 '13년 35.1%로 감소
- 한국을 생산거점(생산위탁, 기존거점 강화, 신규거점 설립) 및 판매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율이 모두 감소
- 생산거점에 대해서도 모두 강화 내지는 확대하겠다는 비율이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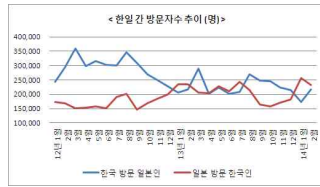
□ (시사점)

- 한국의 투자환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제외하면 일본의 대한투자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만한 개선점이 미흡
- 더욱이 엔저가 가속되고 있는데다, 일제하 한국인징용자에 대한 보상판결 등 한일 정치관계의 악화 등이 한일경제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이 대응이 요구
- 정치·외교 관계가 악화될수록, 양국 경제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민간 산업협력의 다양화·심화노력이 절실

3. 일본인 입국자, 한국인 일본방문자 모두 감소

□ (일본인 방한) 한일관계 악화, 원저·엔고로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수는 감소 추세

- '14년 2월 일본인 입국자는 217,15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UNTO)

□ (한국인 방일) 2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도 감소

- '14년 2월 일본 방문 한국인 수는 231,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 한국의 설날이 2월 1일(토)까지였고, 과거에도 2월은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임
- 다만, 과거 2년 전에 비해 감소폭이 커진 요인은 '13년 12월부터 엔화 가치의 하락이 주춤하여 완만하게 엔고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는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4.2월~3월)

□ 국내기관

- 『최근 엔저 이후 한·일 교역 비교』 산업연구원, 2014년 3월18일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9&state=view&idx=46620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시장의 변화와 진출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3월11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1753>
- 『최근 일본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3월)』 한국은행, 2014년 3월7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04807&boardBean.menuid=2229&boardBean.mum=2&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일본 고용 임금 늘린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으로 경제부활에 박자』 한국무역협회, 2014년 3월6일
<http://it.kita.net/>
-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이후 한·일관계』 외교안보연구소, 2014년 3월6일
<http://www.knda.go.kr/knda/hmpg/kor/pblct/PblctView.do>
- 『엔저만으로 극복 어려운 일본 수출부진의 교훈』 LG경제연구원, 3월4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LGBI1291-02_20140304130649.pdf
- 『나고야 경제권의 특징과 한일경제협력 가능성』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4년 2월20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1753&no=41695>
- 『최근 일본 수출기업동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4년 3월25일
http://www.kita.net/newtri2/report/itreporter_view.jsp?sClassification=7&sNo=1122

□ 일본기관

- 『2030년 일본 경제·산업의 모습』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4년 3월21일
<http://www.iti.or.jp/JIDEAsangyou.pdf>
- 『제조업의 현상과 과제 : 산업구조심의회, 제조업분과위원회 자료』 경제산업성, 2014년 3월 21일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eizou/pdf/001_02_02.pdf
- 『탈원전이 일본의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투자연구소, 2014년 3월19일
<http://www.iti.or.jp/kikan95/95sasai.pdf>
- 『일본의 통계 2014』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14년 3월13일
<http://www.stat.go.jp/data/nihon/index2.htm>
- 『일본의 산업경쟁력 재생을 위해』 경제산업연구소, 2014년 3월12일
http://www.rieti.go.jp/jp/columns/a01_0391.html
- 『아베정권의 성장전략의 요점과 평가』 다이와종합연구소, 2014년 3월4일
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mlothers/20140303_008268.pdf

2 일본의 주요 경제 일정 [3월]

일자	주요 행사 내용
4	• 한중일 FTA 교섭(7일까지, 서울)
6	• TPP 한일교섭회의(도쿄)
7	• 긴키일본철도, 일본 최고층 복합빌딩 '아베노하루카스'(오사카) 준공, 300m
	• 1월 경기동향지수 속보치(내각부)
10	• 10~12월 GDP개정치 발표(내각부)
11	• 동일본대지진 발생 3주년
	• TPP 미일사무레벨교섭회담(워싱턴, 12일까지)
12	• 1~3월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내각부)
13	• 1월 기계수주(내각부)
17	• 3월 월례경제보고
18	• 일-베트남 정상회담
18~19	• 신산업무역회의(도쿄)
19	• 경제재정자문회의(총리실)
19	• 산업구조심의회 제조산업분과위(경산성)
19	• 2월 무역통계(재무성)
20	• 14년도 예산안 통과
24	• 핵안전보장정상회의(네덜란드)
25	•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총회 개최(요코하마)
3월 중	• 도쿄 도심 환상2호선 미개통구간(통칭 맥아더 도로) 개통
	• 간사이전력의 오오하라원전(후쿠이현) 방조제 완성
	• 독립행정법인 원자력안전기반기구를 폐지, 원자력규제청으로 통합
	• 히타치제작소가 도쿄전력의 자회사 테프코시스템즈의 일부를 매수
	• 브리지스톤이 베트남에서 승용차용 타이어 공장 가동
	• 파나소닉 사업재편, 플라즈마TV 사업을 철수